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과목 추가신설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학문적 현황과 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결과, 추나과와 예방한의학과가 신설 요건을 만족하여 전문과목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노령한의학과(가칭)를 한방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풍의학중심의 한방응급의학과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정식 학회가 발족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신설을 논의할 수 없었다. 또한, 앞으로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의사 전문의제도처럼 개업을 위한 표방 수단으로써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KSPM-106

우리나라 일부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의약품 광고의 근거에 대한 평가

Quality of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five Korean medical journals

안성복¹⁾, 하경수¹⁾, 최원²⁾, 김현창¹⁾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국 엠에스디 의학부

Objectiv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quality and evidence of pharmaceutical advertisements in medical journals. However, the medical review process of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is not fully developed in Korea. We conducted this study to assess whether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Korean medical journals had relevant references, and whether the claims were supported by the references.

Methods: We reviewed all advertisements promoting pharmaceutical products in five Korean medical journals (The Korean Circulation Journal,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Korean Academy Journal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docrinology, The Journal of The Korean Rheumatism Association) issued in the first half of 1999 and in the first half of 2004. Three investigat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advertisements to see whether the studies quoted to endorse the advertising messages supported the corresponding claim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 investigated which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dvertisement claims.

Results: From the 550 advertisements in the five journals, we identified 157 different advertisements and 475 different promotional claims. Only 149 claims (62 in 1999 and 87 in 2004) had at least one reference, and 105 claims (38 in 1999 and 67 in 2004) had references of published article. We could find supporting evidences in the 90 claims (29 in 1999 and 61 in 2004). Three claims were not supported by the published references, and 12 claims could not be assessed because of non-standardized and incorrect citation. The factors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advertisement claims were drug category, claim category,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Claims for cardiovascular and endocrine drugs (vs. respiratory drugs), and claims on efficacy (vs.

convenience, cost and others), and claims of multinational company (vs. domestic company) were more evidence-based. Publication tim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dvertisements.

Conclusions: Majority of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Korea did not have appropriate references, and no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in the past 5 years. Drug category, claim category,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advertisement claims,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Guidelines for medical advertisements and standard formats for citation are needed.

KSPM-122

대학 신입생들의 입학 전 2개월간 안전사고 발생 실태

Safety Accidents Status of Freshmen for 2 Months before Entrance University

민영선¹⁾, 임현술¹⁾, 이관¹⁾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국내에서 2003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65.3명으로 사망 순위 3위이고, 1세에서 39세까지의 사망 원인에서는 1위이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안전사고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방법: 2004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 보건소를 방문한 신입생 1,982명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학 전 2개월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출한 62명을 제외하고 1,920명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사고는 일상생활 중 자신이나 타인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였다. 성별, 출신 지역, 졸업 후 입학할 때까지 기간과 안전사고 여부에 대하여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여 p<0.05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985명(51.3%), 여자 935명(48.7%)이었다. 입학 전 2개월 동안 안전사고는 38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발생자는 1.98명이었다. 남자는 28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2.84명, 여자는 10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1.07명으로 교차비는 2.71(95% CI; 1.31-5.60)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사고를 당한 상황은 일상적 행동을 하던 중 13명(36.1%), 스포츠 활동 시 10명(27.8%), 교통사고 8명(22.2%)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골목 및 도로가 17명(47.2%), 운동장이 13명(36.1%), 집에서 4명(11.1%), 작업장이 2명(5.6%)의 순이었다. 손상 기전으로는 물건,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가 18명(47.3%), 넘어진 경우가 14명(36.8%), 추락 7명(13.2%)의 순이었다. 손상 종류는 염좌가 13명(36.1%), 타박상이 7명(19.4%), 열상이 6명(16.7%)의 순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자신의 부주의가 23명(63.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는 28명(73.7%), 그 중에서 입원을 한 경우는 7명(18.4%), 수술은 3명(7.9%)이 받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은 100명당 1.98명이었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자신의 부주의가 많아 개인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도 유발되므로 안전한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 보건소를 방문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여건이 양호한 학생들만 조사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문조사를 통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정보바이아스의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를 조사하지 못하여 재학기간과 입학 전 기간의 비교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신입생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청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KSPM-129

혈청 GGT(γ -glutamyltransferase)와 CRP(C-reactive protein)의 고혈압·혈당이상·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관련성

The association of serum gamma-glutamyltransferase and C-reactive protein with prevalence rate of hypertension, serum glucose abnormality, and metabolic syndrome

임지선¹⁾, 박의현²⁾, 김보원³⁾, 채성철²⁾, 감 신¹⁾, 김정국³⁾, 이경수⁴⁾, 이종정⁵⁾, 임부들⁶⁾, 양진훈¹⁾, 천병렬¹⁾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북대학교 심혈관 연구소,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학교실, (4)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 경북대학교 건강증진 연구소

목적: 혈청 GGT가 고혈압과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혈청 GGT와 CRP 수치의 고혈압, 혈당이상,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방법: 혈압은 5분의 휴식 후 수은주 혈압계를 사용하여 2회 측정하였고 공복혈당과 포도당 75g 부하 2시간 후 혈당을 이용하여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당뇨병의 여부를 판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이미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모두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정하였다. 대사증후군은 NCEP-ATP III 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생활습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공복상태에서 채취한 정맥혈에서 혈청 GGT와 CRP 수치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연령이 30-69세인 대상자 1,446명 중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이거나 당부하 2시간 후 혈당이 50mg/dL 이하거나 CRP가 10mg/dL 이상이거나 GGT가 100mg/dL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1,1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당뇨병, 대사증후군이 모두 없는 대조군 539명과 공복혈당 및 내당능 장애와 대사증후군이 없는 고혈압 334명, 고혈압과 대사증후군이 없는 혈당이상(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당뇨병 포함) 75명,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대사증후군 92명을 선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각 군의 혈청 GGT의 기하평균은 대조군 13.5mg/dL, 고혈압군 17.8mg/dL, 혈당이상군 24.3mg/dL, 대사증후군 16.1mg/dL로 대조군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각 각 $P < 0.01$,

$P < 0.01$, $P < 0.05$). 혈청 CRP의 기하평균은 대조군 0.55mg/dL, 고혈압군 0.87mg/dL, 혈당이상군 1.17mg/dL, 대사증후군군 0.67mg/dL로, 대조군에 대하여 고혈압군($P < 0.01$), 혈당이상군($P < 0.01$)은 모두 유의하게 높았고 대사증후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연령,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를 보정하고서, 혈청 GGT와 CRP의 사분위범위와 고혈압, 혈당이상, 고혈압·당뇨병,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GGT 1사분위범위를 기준으로 유병률을 비교할 때, 고혈압유병률은 4사분위범위에서(OR=1.92, 95% CI: 1.18-3.12), 혈당이상 유병률은 3사분위범위(OR=2.17, 95% CI: 1.04-4.51)와 4사분위범위(OR=6.85, 95% CI: 3.29-14.2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CRP 1사분위범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유병률을 비교할 때, 고혈압유병률은 4사분위범위에서(OR= 1.80, 95% CI: 1.16-2.78), 혈당이상 유병률은 3사분위범위(OR=3.13, 95% CI: 1.56-6.28)와 4사분위범위(OR=2.92, 95% CI: 1.41-6.04)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혈청 GGT와 CRP 수치의 고혈압, 혈당이상,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혈청 GGT와 CRP는 모두 혈당이상과 가장 강력한 양의 관련성을 갖고 있었고, 다음으로 고혈압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대사증후군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KSPM-136

보험자료를 이용한 의약분업 전후의 고혈압 환자의 진료지속성 분석

(Medical insurance data based-comparison of continuity in hypertensive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박중선¹⁾, 강복수¹⁾, 이경수¹⁾, 황태윤¹⁾

(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고혈압의 유병률은 30%에 이르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Rule of halves에 따르면 적절하게 혈압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12.5%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대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의 실시 전후로 고혈압 환자의 진료지속성과 의사들의 처방 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방법: 1998년 9월과 2000년 9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지급 된 자료 중 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주상병명 또는 부상병명이 원발성 고혈압(ICD code I10, 청구번호 145)으로 청구되고 내원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내역이 없는 환자를 1년 간 추적 관찰하였다. 1998년 3862명, 2000년 6391명으로 전체 대상자 10253명 중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1998년 3417명, 2000년 4560명 총 797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간 내원일수가 6일 이상이고 연간 처방일수가 240일 이상 되는 경우를 진료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1998년 9월 처음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276명(37.3%),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556명(45.5%)이었고, 2000년 9월 종합병원을 처음 이용한 환자는 908명(19.9%),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106명